

꿈의 意味 :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The Meanings of Dream Contents in the Psychotherapeutic Perspective

李 炳 郁¹Byung-Wook Lee¹

■ ABSTRACT

The reason for exploring dreams is to understand the of patient's conflicts and unconscious motivation. Even if the therapeutic value of dreams is considerably faded these days, I can not deny that dreams are still very useful. From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dreams have been an appealing subject for many people. In the past, dreams chiefly had the value of prophetic meaning, and in our tradition attention was paid to dreams in terms of good and bad dichotomy. Freud's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and technical development of its exploration is reinforced by dream interpretation.

In contemporary terms, although dreams are not the royal road to the Unconscious, they surely present a short-cut. I suggest that dreams as a treasure island of the Unconscious have a useful therapeutic value, and that stressing the importance of dreams is by no means anachronistic. I believe that practical sessions without dreams are like a river without bridge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2001 ; 8(2) : 90-97**

Key words: Dream · Contents · Meanings.

서 론

한 인간이 60평생을 살면서 잠자는 데 보내는 시간은 대략 20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약 5년간은 꿈꾸는 시간이라고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꿈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인간은 20년간 일과 노동에 바치고, 길에서 오가는 시간만도 5년이 걸리며, 10년의 세월을 먹고 마시는데 허비한다. 나머지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성생활에 바친다. 이토록 중요한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꿈의 실체는 아직도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의도하는 목적과 그 나타난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本稿는 2001년 10월 12일 대한수면정신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口演되었음.

This paper was presented at Autumn Scientific Meeting of Korean Association of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in October, 2001.

¹ 翰林大學校 醫科大學 精神科學教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Byung-Wook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948-1 Daerim-1-dong, Yon-seongpo-Ku, Seoul 150-071, Korea

Tel: (02) 829-5189, Fax: (02) 849-4469

E-mail: bwooklee@chollian.net

서 현대과학 및 정신분석이 이론 업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인간과 달리 동물의 꿈은 더욱 연구하기 어렵지만 수면 측정도구의 발전에 힘입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져 왔다. 동물 가운데 꿈을 꾸는 동물은 새, 유대류, 사람 등이 포함되는데 물고기, 양서류는 꿈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기린은 신체 구조상 서서 잠을 자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곰, 개구리, 뱀 등은 겨울 내내 잠만 자는 동물이다. 눈뜨고 자는 동물로는 비둘기가 유명하고, 돌고래는 한쪽 뇌로만 잠을 잔다고 한다. 이처럼 수면과 꿈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그 양상도 제각각이다.

프랑스의 작가 장 콕토는 [꿈]이라는 제목의 짧은 시에서 “꿈은 잠이 누는 똥”이라고 노래하였다. 즉 꿈이란 잠의 부산물이며 동시에 그 배설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입장과는 달리 프로이트는 꿈의 효용성과 그 상징적 의미를 밝힌 최초의 인물이었다. 일반적으로 꿈의 생리적 기전에 대해서는 비교적 이의를 제기하진 않으나 그 심리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반감이 적지않은 듯 하다. 물론 그 이유는 꿈 내용의 상징과 의미를 확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이 현실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이며 심리적인 접근방법 자체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풍부한 임상적 경험에서 비롯된 증거들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꿈이 지닌 치료적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는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꿈 내용의 의미를 탐색 및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꿈 解釋의 歷史

인류가 탄생한 이래 인간은 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왔다. 그러한 유례없는 관심은 동서를 불문하고 일치된 현상이라고 하겠다. 동양에서는 장자의 나비 꿈이 가장 유명하다. 그러나 장자가 실제로 그런 꿈을 꾸고 한 말인지 철학적 은유로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확실치 않다. 짐작컨대 후자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종 보존의 차원에서 胎夢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 측면에서 꿈이 다루어진 경우, 수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이 그 해석 여부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의학적인 목적으로 꿈이 취급된 경우는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기원전 수세기에 이미 꿈에 대한 해석과 정신치료적 접근을 한 것으로 기록에 전해진다. 즉 마케도니아 왕 페르디카스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일러줌으로써 왕의 정신증상을 치유한 것인데 Abse가 소개한 그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1).

마케도니아의 왕 페르디카스(Perdiccas)는 어느날 갑자기 주기적 발열, 수면장애, 집중력 장애, 근육약화, 노상배회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내노라 하는 의사들도 그 병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당시 명성을 날리고 있던 히포크라테스가 특별히 초빙을 받아 왕을 진찰하게 되었는데, 왕이 꾸는 꿈 내용을 자세히 듣고난 후, 히포크라테스가 내린 진단명은 다름아닌 상사병이었다. 꿈을 이용한 정신치료적 개입으로서는 아마도 가장 최초의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히포크라테스의 꿈 해석은 부왕에 대한 감정 및 그의 애첩 Phylla에 대한 연정을 억제함으로써 생긴 증세라는 것이었으며 그 처방은 필라에게 찾아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도록 권유한 것이었다. 히포크라테스의 해석과 처방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페르디카스 왕은 발끈 성을 내며 곁에 있던 창을 집어 내던지고는 자신의 막사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왕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히포크라테스는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했다는 것인데, 이는 곧 왕의 저항을 통하여 치료자가 자신의 해석이 적중했음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결국 왕은 히포크라테스의 지시에 따른 결과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기록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꿈은 더욱 상징적이다.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페니키아의 도시 티루스를 포위한채 맹공격을 가했지만 적의 항거 또한 만만치 않아서 성은 함락될 기미조차 영보이지 않게 되었다. 초조해진 대왕은 어느날 밤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대왕이 자신의 방패 위에서 춤추는 사티로스를 목격한다는 장면이었다. 이에 대한 아리스탄테르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Satyr라는 단어를 Sa와 tyros로 분리하여 해석하고 Sa Tyros란 결국 티루스는 그대의 것이라는 의미이니 왕의 승리를 가리키는 꿈의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즉각 공격 명령을 내릴것을 권유하였는데 실제로 그대로 한 결과 손쉽게 성을 함락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르탄테르가 내린 해석은 거의 프로이트 방식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러나 사티로스가 술과 여자의 신임을 고려한다면 대왕의 성적 욕망을 간과했다는 헛점도 지적할 수는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탄테르의 꿈 해석은 언어적 의미의 상징적 합성을 통한 해석이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전 바빌론에서 활약한 유대인 랍비 Hisda는 말하기를, “해석되지 않은 꿈은 뜯어보지 않은 편지와 같다” 고 하였다. 이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주장한 프로이트와 일맥 상통하는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다(2). 즉, 꿈에는 우리의 의식에서는 알 수 없는 숨겨진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점을 두 사람 모두 지적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꿈 내용에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고대인들에게도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그것이 꿈 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역동적 차원의 개념이 결여되었을 뿐이다. 페르디카스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꿈 외에도 기록으로 남겨진 자세한 꿈 내용으로서는 단연 프로이트가 직접 꾸 이르마의 주사 꿈과 융의 필레몬 현자 꿈이 가장 유명한데 두가지 꿈은 이들 대가들이 생전에 자주 언급한 대표적인 꿈들로서 이에 대한 연구문헌들만도 적지않은 분량을 차지한다.

프로이트의 꿈

Freud(3)는 [꿈의 해석]에서 자신이 꾸는 꿈을 제시하며 그 의미를 탐색하였는데 이른바 그 유명한 ‘이르마의 주사 꿈’이 그것이다. 1895년 7월 23일에서 24일에 걸친 꿈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큰 홀에서 여러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환자 이르마가 있었다. 나는 이르마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 목구멍을 진찰했다. 의치를 한 부인들이 흔히 그렇듯 이르마는 내

키지않는 기색이었다.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이르마가 입을 크게 벌리자 오른 쪽에 큰 반점이 보였다. 나는 급히 M박사를 불렀는데 그는 나와 함께 다시 진찰하더니 나의 관찰이 틀림없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친구 오토와 레오폴트도 옆에서 이르마의 몸을 진찰했다. M은 말하기를, 이것은 전염병의 일종이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토는 이르마에게 프로필 주사를 놓았다. 그런 주사는 경솔히 쓰지 않는 법인데... 아마 주사기의 소독도 불완전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꿈은 끝남으로써 애매해지고 템포가 빨라지는듯 했다.’

이에 대한 프로이트의 반응과 해석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프로이트 자신은 이르마에 대한 그의 치료적 책임과 관련지어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르마의 꿈에서 보이는 프로이트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은 깊이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역전이적 차원에서 문제를 다룰 수가 없었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곤란했을 수도 있다(4).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에 대한 분석의 초점을 환자에 대한 오진에 맞추었다. 즉 치료의 실패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 꿈으로 본 것이다. 또한 의미심장한 주사에 대해서도 코카인 오용 때문에 죽은 불행한 친구를 떠올리는가 하면 친구 오토에 대한 비난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신의 억압 때문에 의식적인 주목을 기울이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단서들을 남겨두었다. 마치 자신의 후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번 찾아내 보라는 듯이 여러 증거물들을 여기 저기에 감추어 놓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趙斗英(5)이 소개한 에릭슨의 이르마 꿈 재해석이 흥미롭다. Erikson은 이르마 꿈에서 나타난 발현내용만 갖고도 프로이트의 인생 발달단계의 문제들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6),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르마의 주사 꿈이 프로이트 자신의 꿈이 아니라 다른 남성 환자가 꾸는 꿈이었다면 그는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즉, 의치나 목구멍, 여성의 벌린 입안을 들여다 보는 행위, 구태어 싫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여성의 몸을 진찰하는 네 명의 사나이들, 원인불명의 전염병은 성병일 수도 있고 오토가 놓아준 주사는 남근을 상징할 수 있다. 더욱이 경솔히 쓰게 아니며 불결한 물건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꿈이 종결 부분으로 가면서 템포가 더욱 빨라진다는 설명도 그런 심증을 더욱 굳게한다. 실제로 프로이트가 밝힌 사실은 그 꿈을 꾸기 전 날, 친구 오토가 프로이트의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병의 레테르에 ‘바나나’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음을 기억하고 오토가 빨리 여자를 얻어서 남의 아내에게 그런 쓸데없이 선

물하는 습관을 빨리 버렸으면 하는 바램을 드러내었다는 점이다. 누구라도 손쉽게 알 수 있듯이 바나나는 남근의 상징이다. 또한 프로필 주사제는 바로 오토가 선물한 병에서 낫던 기름 종류 냄새와 관련이 있다고 프로이트 자신도 인정한 부분이다. 병꼭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냄새는 상당히 성적인 자극을 유도할 수 있다. 이처럼 이르마의 주사 꿈은 프로이트 자신의 성적인 역전이 감정을 드러내는 꿈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치료적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다. 중요한 점은 치료자 자신의 역전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사실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마술과 환상

꿈의 세계는 비현실적인 마술과 환상으로 가득 찬 세계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꿈속에서나마 이루어보고 싶은 욕망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런 점에서 꿈이란 인간의 삶에서 큰 위안거리가 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면서 꾸는 꿈과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을 같은 의미로 사용해온 것이다. 이 다음에 당신의 꿈은 뭐요? 라고 할때는 장래 소망을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하기 마련이다. 할리우드를 꿈의 공장이라고 부른다. 영원한 떠돌이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고 해서 유대민족을 일컬어 dream people이라고도 하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은 “I have a dream ...” 으로 시작한다. 드림 팀, 드림 필드, 드림랜드 등 꿈이라는 단어가 붙는 경우는 항상 즐겁고 환상적이며 최고의 최고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꿈과 마술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마술의 특징은 트릭 및 눈속임에 있는데 꿈 역시 그러한 트릭 과정을 통하여 꿈 꾸 당사자를 눈속임한다. 영화라는 예술이 시각적인 트릭을 이용한 환상 매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꿈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인간은 잠잘 때마다 자신의 소망 및 욕구 충족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삶의 평형을 유지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일종의 dream box로서의 꿈의 기능은 뇌와 마음 사이의 콘도미니엄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꿈은 흔히 역설적인 내용을 드러내 보이지만 그런 점에서 단순한 눈속임의 차원에 머무는 마술과 다른 것이다. 마술은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지만 상징적 의미나 역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과 마술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추면서 유아적인 마술적 사고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

꿈의 작업

꿈에서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실의 법칙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렇게도 말한다. '무의식은 결코 의식화될 수 없다. 일단 의식화되면 이미 무의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도 말한다.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일단 죽고나면 이미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꿈은 어떠한가. 꿈에서 깨어나면 꿈은 이미 깨지고만 것이기 때문에 부서져 흐트러진 거울조각처럼 이미 복원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프로이트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꿈의 자료를 통하여 이미 상당한 왜곡과 편집이 개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의식적 의미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꿈의 작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의식적인 발언은 물론 꿈 내용에 있어서도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는 항상 제기되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나는 왕이요, 황제이며 대통령이다' 라는 텍스트에 대하여 그러한 주장을 굳이 곧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문맥의 차원에서 다루고자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이 농담으로 한 말인지 망상에서 비롯된 말인지 아니면 꿈 내용을 말한 것인지 구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꿈 내용은 잠재몽(latent dream)과 발현몽(manifest dream)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꿈들은 발현몽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 단계의 정교한 작업과정을 거치기 마련이어서 본래의 그 의미와 의도를 알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잠재몽의 의미는 자위행위를 뜻하는 masturbation의 의미가 발현몽에서는 베이츠 씨(Master Bates)로 둔갑해서 전혀 엉뚱한 의미로 나타나기 때문이다(7). 또는 사탄 클로스(Satan Close)가 산타 클로스(Santa Clause)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꿈은 발현몽 자체만으로는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텍스트, 즉 꿈을 꾸 당사자의 심리세계 전반에 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고는 핵심에서 벗어나기 마련인 것이다. 프로이트는 꿈을 한 개인의 환상과 소망충족을 드러내는 일종의 무대로 표현했다. 그리고 하나의 꿈으로 나타나기까지 여러 단계의 작업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압축(condensation), 전치(displacement), 상징화(symbolism), 이차적 정교화(secondary elaboration) 등의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우리의 의식상에 기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본래 뜻하는 의미들이 의식상에 떠오른다면 우리 자신들의 자아가 그런 내용

들을 인정하고 담아두기에는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아는 여러번의 수정작업과 방어단계들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가 동원하는 응급조치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작업이었는가 그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무의식적 내용이 무엇인지 상당히 근접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한 원칙은 꿈뿐이 아니라 환자의 자유연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프로이트는 보았던 것이다.

꿈의 종류

우리가 매일 꾸는 꿈에는 천차만별의 내용과 감정들이 담겨져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흉화복의 차원에서 꿈을 해석하는데 길들여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몽의 대부분은 길몽이나 흉몽이나 식의 좋고 나쁜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이루어지는게 상례였다.

대개의 경우 day residue를 반영하는 소위 개꿈은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높지만 뚜렷한 악몽일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의 결과로 인식하기 보다는 앞으로 불길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매우 높았다.

전형적인 사례가 태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올 아기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장래 커서 큰 인물이 될 징조로 받아들임으로써 일종의 계시몽의 차원에서 꿈 내용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하는 아기를 갖는 꿈의 경우, 대개는 그런 아기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남근의 대치물을 상징하는 수가 많다는 해석도 있다(8). 우리가 흔히 듣게되는 용꿈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몽과 분석적 꿈 해석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대개의 경우 해몽은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그 자체가 소원성취 및 소망충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또한 '꿈은 반대다'라는 대중적인 인식은 항상 인간의 소망이나 바램과는 어긋나는 쪽으로만 흘러가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삶에서 비롯된 자조적인 감정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꿈의 종류는 다양하다. 태몽, 악몽, 길몽, 흉몽, 계시몽, 전이몽, 역전이몽, 저항몽, 소원몽, 춘몽, 오이디푸스몽, 거세몽, 불안몽, 환몽 등등, 그 종류는 꿈을 판독하는 사람의 심리사회적 배경에 따라 실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러나 분석적 시각에서 본다면 역동적 의미에 따라 다소 인위적이긴 하지만 꿈의 종류를 나름대로 구분지을 수는 있겠다. 오이디푸스몽(oedipal dream)이라고 하면 근친상간몽(incest dream)과 거세몽(castration dream), 남근선망몽(penis envy dr-

eam)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실제로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심층세계를 깊이 다루는 단계에서는 환자의 꿈 내용에서 이러한 측면들이 곧잘 드러나는 수가 많다. 특히 반복적인 꿈 내용은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저항몽(resistance dream) 역시 치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전이몽(transference dream) 및 역전이몽(countertransference dream)은 치료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전이현상의 일부로서 전이몽의 출현은 환자의 통찰력을 깊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역전이몽 자체도 치료자가 그 의미에 주목하고 자신을 검증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꿈에 치료자가 나타나는 수도 많으며, 치료자의 꿈에서도 환자의 모습이 자주 보이면 일단 역전이감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악몽에도 과연 무의식적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들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답은 물론 그렇다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쟁공포증 환자의 악몽 내용 중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의 재연도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상황의 재연만이 아니라 개인적 의미를 뜻하는 내용들도 항상 수반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다. Garma(9)는 꿈의 발생에는 기본적으로 외상적 상황(traumatic situations)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프로이트가 말한 소망충족은 단지 이차적인 역할만을 맡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프로이트는 실제로 그의 정신분석입문에서 한 죄수의 꿈을 다루면서도 감옥에 갇힌 죄수의 외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꿈과 성

프로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의 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때문이라는 것을 그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사람들이 흔히 믿듯이 꿈의 모든 내용을 성적 의미로 해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오해는 꿈의 해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다. 실제로 꿈이 의도하는 바를 알아낸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은 법이다. 인간의 무의식은 좀처럼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무의식 자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서를 짐작할 뿐이다. 그러나 그 단서는 환자의 통찰력 획득에 상당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적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이지, 단순히 맞다, 틀리다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다. 꿈을 비롯한 인간의 심리적 세계는 다원적인 의미를 형성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성적 의미만으로는 그 핵심을 놓치기 쉽다.

흠친 사과가 맛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론은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선뜻 인정받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윤리적, 비도덕적 메시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Freud(3)가 꿈의 해석에서 방대한 자료 제시를 통하여 정리한 성적인 상징들은 그야말로 상징일 뿐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증척된 의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전후 배경의 심리적 과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환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꿈에 흔히 나타나는 꽃, 과일, 거울, 숲, 모자, 깃털, 상자, 물레방아, 절구, 멧돌, 방망이, 권총, 동산, 계곡, 절벽, 계단, 엘리베이터, 사다리, 기차, 비행기, 동굴, 터널, 지하실, 물, 홍수, 다리 등의 주제들은 성적인 의미를 갖는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경우에서조차 그 성적인 의미를 더욱 확인하는 수도 많다. 중요한 점은 꿈 내용 자체의 의미 해석이 아니라 꿈 내용을 단서로 하여 이어지는 환자의 연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상을 통하여 보다 명료한 의미 탐색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아무리 성적인 의미가 분명하다 해도 거기에는 공격적 의미도 함께 증척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치료자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기 보다는 환자와의 협력을 통한 의미 탐색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꿈과 상징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상징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구사할 줄 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인간의 문명생활은 상징 기능과 함께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적 상징, 성적 상징, 예술적 상징, 문화적 상징 등, 다양한 상징체계는 문명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상징은 인격기능이 유지되는 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꿈은 온갖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그중에서도 보편적 상징은 인간 심성의 본질에 더욱 근접한 보편타당한 호소력을 갖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적 의미 상징을 모두 내포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치료적 차원에서 본다면 개인적 상징이 더욱 큰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편적 상징의 가치는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십자가라는 종교적 상징이 갑자기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종교적 심성을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외에도 문화적 상징, 집단적 상징의 표상으로서 꿈에 나타나는 내용들, 역시 치료적 차원에서는 부차적으로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의미와 무의미 차원에서 꿈의 가치를 논하는 경우도 있다.

정신분석은 인간의 모든 심리적 현상에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반면에 불교적 메시지에 따르면 인간의 현상계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본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마치 떠도는 구름처럼 덧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꿈도 과연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 의미를 모른다는 말인가? 무의미하다고 믿는 것과 그 의미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 사이에는 상당한 인식론적 간격이 놓여있다. 어느 스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프로이트처럼 불쌍한 인간도 없다. 우리의 삶은 덧없는 꿈에 불과한데 그것도 부질없는 꿈에 매달려 한 평생을 보냈으니 그보다 더 딱한 일도 있겠는가' 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 자체가 동어반복적인 논리적 오류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물론 그 세계에서는 논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니 반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논법에 따르면 '세종대왕처럼 불쌍한 인간도 없다. 글이란 무의미하고 덧없는 것일진대 그것도 부질없는 문자에 얽매어 한 평생을 바쳤으니 그보다 더 딱한 일도 있겠는가' 또는 '체플린처럼 불쌍한 인간도 없다. 영화의 실체는 결국 허상의 연속에 불과한 것인데 그러한 허상에 매달려 한 평생을 보냈으니 그보다 더 딱한 일도 있겠는가' 등의 식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현실적으로 더 큰 감동과 설득력을 지녔는지는 개인적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꿈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없이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다. 망상을 지닌 정신병환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자아의 능력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지 못한다. 소위 꿈꾸며 걷는 사람(dreaming walker)이란 비유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는데 실패한 환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꿈은 암호요 비밀편지와도 같다. 프로이트는 그 감추어진 의미, 소망 등을 해독해 내었다. 그에게 꿈의 해석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무의식을 밝히는 왕도로서 그 임상적 가치를 확대시켰다. 반면에 융은 꿈의 의도 및 목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꿈의 신비성과 예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꿈에 대한 접근에서조차 두 사람은 방향이 전혀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꿈속의 도시

꿈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은 꿈을 예로 들고 싶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느 카페에서 아주 친한 친구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친구가 요즘 TV에서 인기있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불륜

에 관해서 너는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너는 정신과의사니까 잘 알 것 아니냐면서 내 의견을 물어온 것이다. 나는 불륜에 관한 내용으로 과거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제목을 예로 들며 그 어떤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분명치가 않다.]

대충 그런 내용인 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꿈속에서 분명히 말했던 그 드라마의 제목이 생각날 듯 말 듯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여기서 저자는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기억을 방해하는 힘은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기억을 가로막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저자는 기억을 되살려내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지만 그 제목은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감질만 내고 사라져 버렸다. 우선 가장 먼저 연상된 단어는 프레스코트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비슷하기는 하나 분명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페티코트가 떠올랐다. 여성의 속옷을 뜻하는 말이니 이것도 아니었다. 영화의 배경으로 눈이 많이 쌓인 추운 겨울 장면과 외진 소도시가 기억이 나서 곧 버몬트라는 단어가 연상되었는데 버몬트는 미국에서도 가장 춥고 북쪽에 위치한 지방이라 연상된 것 같다. 그래서 몬트라는 발음에 기울어져 그후에는 페리몬트, 에그몬트, 프리몬트로 이어지며 계속 맴돌았다. 그러나 몬트는 분명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작은 마을을 의미하는 타운 또는 톤 쪽으로 기울어져 페리타운, 프레스톤, 페리스톤, 페리톤, 페이톤에 이르자 갑자기 기억이 완벽하게 재생되었다. 내가 찾고자했던 제목은 바로 '페이톤 플레이스' 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기억을 가로막는 힘과 기억을 돕는 힘과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P로 시작할 스코트는 앵글로 색슨 계열을 나타내는 동시에 스코틀랜드와 같은 추운 북쪽지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명한 탐험가 스코트 대령은 남극의 혹독한 추위속에서 얼어죽기도 하였다. P로 시작해서 톤으로 끝나는 단어로 연상되는 것은 페이톤이었는데 페이는 돈의 지불과 연관된 의미이고 톤은 무게의 단위이면서 우리말로 돈과 발음이 비슷하다. 즉 페이톤은 돈을 의미하는 합성어이며 플레이스는 장소를 뜻하는 의미이니 페이톤 플레이스는 돈을 지불하는 장소라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돈의 지불장소라는 뜻의 페이톤 플레이스가 왜 기억으로 재생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꿈에 나타난 친구는 일찍이 개업사로 성공해서 최근에는 작은 빌딩까지 지어 소유주가 될 정도로 내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그 친구로부터 이미 오래 전에 돈을 빌

린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친구는 빚을 갚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한마디로 일축했지만 아무리 친구사이라도 빚은 반드시 갚아야한다는 강박관념과 돈 문제 때문에 우정관계가 급이 가기를 바라지 않는 개인적 소망 및 본인 자신의 자존심 등이 복잡하게 뒤엉킨 상태를 반영한 것 같다. 즉 꿈속에서 단둘이 만나 논의한 것은 돈을 갚되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돈을 건네줄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그 친구가 어떤 모임에서 만나 돈을 빌려줄때, 실제로 돈을 건네준 장소는 모 백화점 화장실이었다. 그래서 돈을 건네는 장소는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꿈의 치료적 가치

꿈은 정신치료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소 그 중요성이 많이 퇴색된 감이 없지 않다. 이 시대의 정신분석가들조차 꿈을 다루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프로이트가 강조한 만큼 꿈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게 사실이다. 따라서 정신분석학계 내에서도 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즉, 다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꿈이 중요하다는 입장(8,10)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11), 그리고 중도파의 兩是論的 입장(12)이 공존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꿈의 유용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선 꿈은 무의식적 갈등을 알 수 있는 훌륭한 단서를 제공한다. 물론 모든 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심리적 현실에 대한 이해 정도에 따라 그 의미는 보다 분명한 모습을 띄게 마련이다. 따라서 꿈은 환자의 통찰력 획득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꿈은 치료적 곤경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잇점도 지닌다. 다시 말해서 환자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치료의 진전이 어려울때, 꿈을 다루는 것은 의외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화제는 그만큼 심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며 환자의 내면세계를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우회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꿈은 전이 및 전이의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Altman(8)이 예로 든[끝없는 노란 물줄기]에 관한 경우를 보자. “나는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생님은 유쾌하고 친절했다. 나는 선생님께 레머네이드를 드시겠느냐고 묻고 선생님 잔에다 노란 물줄기를 끝없이 쏟아 부었지만 그 잔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이 꿈이 공격성에 의해 유발된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당신은 여기 이 자리에서 불안감을 모두 배설해 버려야만 합

니다.” 분석가에게 오줌을 갈기고 싶다는 환자의 위장된 공격성은 분석가와 부모의 상을 하나로 압축시킴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달성했다. 같은 환자의 또 다른 꿈 내용이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꿈 이후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둘 다 알고있는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이상하리만치 긴 숫자였다. 그는 나를 야릇한 시선으로 바라보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해서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주었다. “당신은 아버지와 싸우고나서 어머니를 쟁취했군요. 그 두가지는 항상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 내용을 통한 해석과정은 환자의 통찰력 획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수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정신치료에서는 꿈 자료를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결론

꿈의 해석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확연히 구분된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존재를 최초로 명료화시키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인간의 심리적 현실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시킨 주역은 바로 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꿈은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하여 그 중요성이 인정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을 통하여 제시한 내용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다. 자유연상은 물론 의식적인 자아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꿈은 무의식적 의미 탐색에 자유연상보다 더욱 용이한 접근을 허용한다는 잇점이 있다.

꿈은 인간이 보다 솔직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안팎으로 억압적인 현실은 인간의 방어적인 태도를 더욱 강화시킨다. 꿈의 존재 가치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심리적 관점에서 밝혀진 꿈의 의미는 상당한 정보의 축적을 이룩해내었다. 꿈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심리적 평형의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이 분명하며 임상적 장면에서는 그러한 꿈의 의도가 내비치는 단서를 포착함으로써 환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는 잇점이 있다. 적어도 자신의 심리적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는 통찰을 얻게하는데 있어서 꿈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꿈의 치료적 활용은 그런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단서 및 방법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중심 단어 : 꿈내용 · 의미 · 정신치료.

REFERENCES

1. Abse DW. *Hysteria and Related Mental Disorders*. 2nd ed. Bristol, Wright; 1987
2. 李炳郁, 朴秀炅. 탈무드와 精神分析. 精神分析 2000;11(1): 47-68
3. Freud S. *The Interpretation of Dreams*. SE 4 & 5 London: Hogarth Press; 1900
4. Stephan I. *Die Grunderinnen der Psychoanalyse. Eine Entmythologisierung Sigmund Freuds in zwolf Frauenportraits*. Stuttgart, Metzler; 1992
5. 趙斗英. [꿈의 해석] 이후의 꿈해석. 정신분석 1990;1:5-57
6. Erikson EH. The dream specimen of psychoanalysis. *J Amer Psychoanal Assn* 1954;2:5-56
7. Parry R. *Basic Psychotherapy*. Edinburgh, London, Melbourne an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1983
8. Altman LL. *The Dream in Psychoanalysis*. New York, Int Univ Press; 1975
9. Garma A. *The Psychoanalysis of Dreams*. New York, Delta Book; 1966
10. Greenson RR. The exceptional position of the dream in psychoanalytic practice. *Psychoanal Q* 1970;39:519-549
11. Waldhorn HF. The place of the dream in clinical psychoanalysis. In: *Monograph II of the Kris Study Group of the New York Psychoanalytic Institute*. ed. ED Joseph. New York: Int Univ Press; 1967
12. Blum HP. The changing use of dreams in psychoanalytic practice: dreams and free associations. *Int J Psychoanal* 1976;57:315-324